

북한 남침 시 미군 동원 찬성 50%-반대 49%



▲ 지난해 5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공습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주한 미군. 사진=AP/연합뉴스

북한이 남침할 경우 미군을 동원해 한국을 돕는데 대한 미국민의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가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달 7~18일 실시한 조사(오차범위 ±2%p)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할 경우 미군을 동원하는 데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각각 50%, 49%로 집계됐다.

찬성률 50%는 같은 문항에 대해 40%대를 기록한 2012년과 2014, 2015년 조사 때보다는 높았지만 2017년 62%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았다. 지난해에는 55%, 2021년에는 63%, 2020년에는 58%였다.

한국에 대한 병력 동원 찬성률 50%는 '러시아가 독일과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64%)와 '러시아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와 같은 나토 회원국을 침공할 경우' (57%)보다 낮았고, '중국이 분쟁 도서 문제를 둘러싼 갈등으로 일본에 대한 군사 분쟁을 시작할 경우' (43%)보다는 높았다.

이번 조사에서 해외에 장기 주둔하는 미군 기지를 두는 데 대한 찬반 조사에서 주한미군의 경우 64%가 '주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2016년 70%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찬성률이다. 다만 주일 미군(63%), 주독 미군(61%), 주플란트 미군(54%) 등에 비해서는 높게 조사됐다.

'AI 여친'에 출산율 걱정... "경제 악영향"

인공지능(AI) 여자친구의 등장으로 미국의 저출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전망이다.

최근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현재 미국 젊은 남성의 60% 이상이 싱글이며 이 수치는 지난 30년 동안 4배 증가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남성 5명 중 1명은 친한 친구가 한 명도 없다. 이에 실제 여성 대신 AI 여자친구를 선택해 결혼·출산 감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 자신의 모습을 토대로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를 출시한 미국의 인플루언서 카린 마조리(왼쪽)와 그가 출시한 AI 음성 챗봇인 '카린 AI'. 사진=카린 마조리



문제를 불러온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출산 여성의 비율이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54.9%를 기록한 데 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는 52.1%로 줄어들었다. 남성의 경우도 아버지가 되는 비율이 같은 기간 43.8%에서 39.7%로 줄었다.

공공 의료보험 또한 위기에 놓였다. 미국은 2021년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에 약 1조 6,000억 달러를 지출했다.

더힐은 "AI 여자친구가 농담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AI가 사람을 대신해 외로운 남성들을 상대하고 있으며 이는 10년 이내에 미국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현상은 혼인 감소로 이어져 결국 출산율 감소

세인트루이스 워싱턴대학교의 리버티 비터트 교수는 "1940년에는 사회보장 혜택 수혜자 한 명당 42명의 근로자가 있었지만 현재는 2.8명에 불과하다"며 "우리는 과산하고 있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젊은이들은 주머니에 AI 여자친구를 넣어 다닌다."라고 저출산 문제에 대해 경고했다.

'아메리칸 조식' 안 먹는 미국인들

시리얼과 오렌지주스로 대표되는 미국식 아침 식사를 미국 가정에서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

2일 '뉴시스'에 따르면마켓워치는 최근 "미국 가정에서 아침에 식탁에 둘러앉아 콘플레이크와 오렌지주스를 먹는 모습을 보기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국인들의 아침 식사 풍경이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 미국의 대표 아침식사인 시리얼과 오렌지주스가 미국 가정에서 사라지고 있다. 사진=shutterstock

5.2% 상승한 뒤 2021년 8.7%, 지난해 3.9% 감소했다.

이같은 변화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이 시리얼보다 준비와 뒷정리가 간편한 에너지바나 샌드위치 등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조사기관 민텔에 따르면 미국 내 에너지바 판매량은 2020년 약 70억 달러에서 올해 85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시빅 사이언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 35%만이 일주일 중 7일 아침 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21%는 일주일에 4~6회, 20%는 일주일에 1~3일 아침 식사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시리얼 소비는 현저히 줄었다. 시장조사기업 서카나에 따르면 아침 식사용 시리얼 판매량은 2020년

한편 미국 농무부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7~2020년 설문조사에 참여한 2세 이상 미국인 중 약 84%가 아침 식사로 적어도 한 종류를 먹는다고 답했다. 이들은 건강을 중시해 정제 설탕이 다량 함유된 시리얼 대신 영양소가 비교적 풍부한 식사를 선호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